



# 한울 타리

2020 AUTUMN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0 No 4 2020. 11. 30  
편집: 홍보위원회

# 권두언

##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이영길 목사

얼마전 읽은 손욱 저자의 책(‘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에 나오는 한 문단을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thank)는 생각(think)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됐습니다. 감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결국 행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뇌과학자들은 요즈음 뇌사진을 찍어보니 행복을 느끼는 뇌세포 바로 옆에 감사를 느끼는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뇌세포가 활성화되면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 뇌에 피가 많이 가서 뇌가 좋아지고 엔도르핀 호르몬을 분비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날수록 현대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은 지금부터 약 3천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천년이 지난 이제야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과학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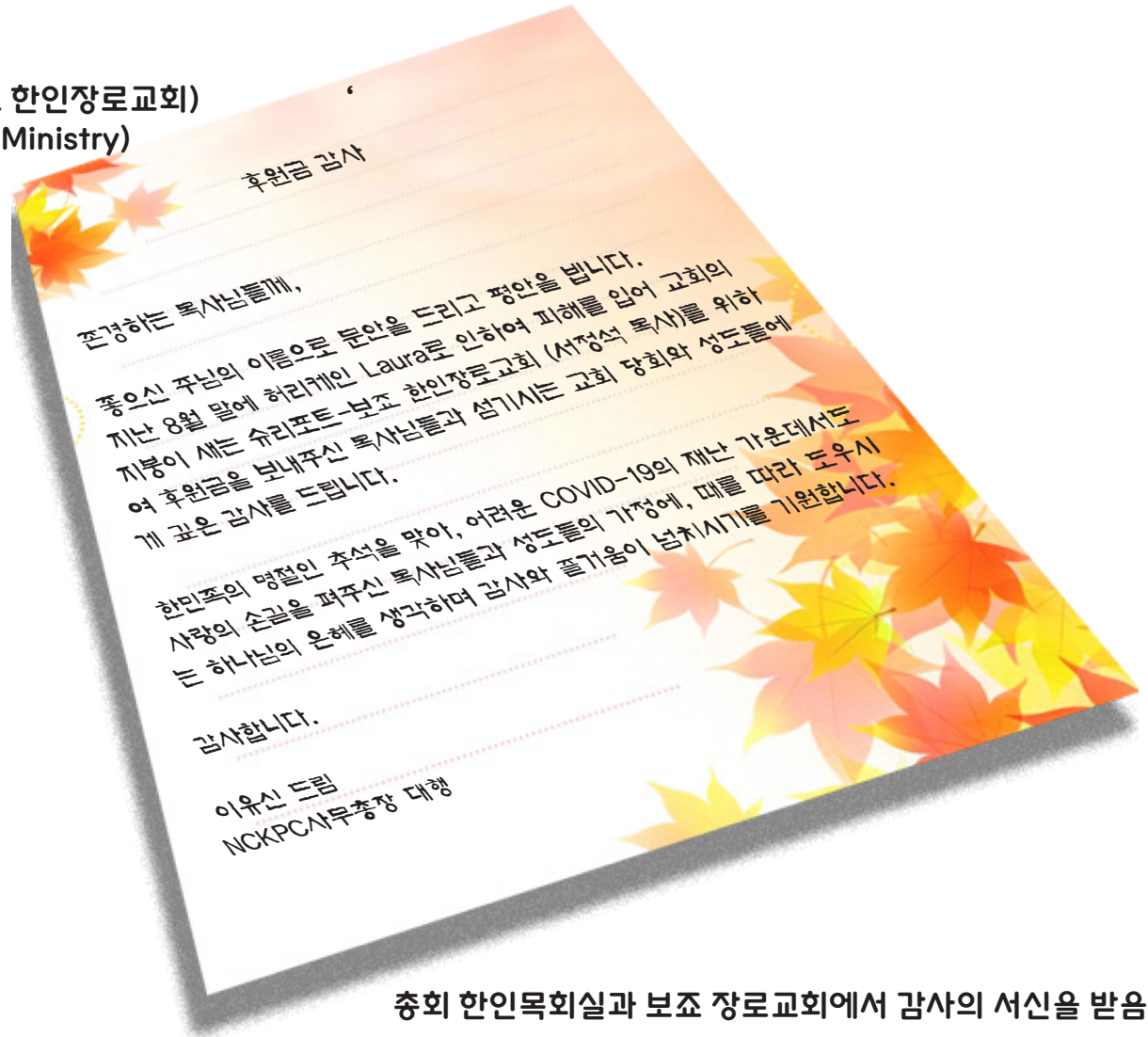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십시다. 후에 과학이 따라오며 증명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과학을 앞지르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과학을 앞지르며 사십시다.





### Covid-19 TF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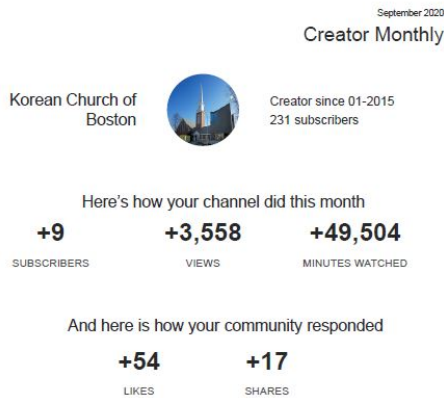
1. 제직 임직식: 안수집사 및 권사 안수식을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 2월 첫 주에 하기로 결정함
2. 오아시스 카페, 쉼마의 밤: 줌/in person 하이브리드 진행
3. 제직회 와 공동의회 또한 하이브리드로 진행할 계획.
4. 교회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각 \$1,000씩 총 \$5,000을 지원하기로 하다.
  - a) 충회 한인목회실
  - b) 충회 출판국(킹덤 라이프)
  - c) 허리케인 재난지원(루이지애나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
  - d) MATE (Mission At The Eastward housing Ministry)
  - e) BNI



# 예배예술 위원회 소식

위원장 박신영 장로

미국 전역에 COVID-19 감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두번째 피크를 이룬 가운데, 메사추세츠 주도 감염자가 매일 1000명 이상으로 속출하고 있고, 주지사는 11월 6일부터 비즈니스 업소는 저녁 9:30분에 영업을 마감하고 모든 주민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Stay-at-home advisory를 따르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와 교인들은 별 어려움없이 계속해서 본당 실시간 참석자 25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리고, 당분간 계속해서 현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9/19/2020

Yahoo Mail - Fwd: Korean Church of Boston, here's how your channel did last month

Hey Korean Church of Boston,

This month,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find ways to change up your content, deepen connections with your audience, and lean into fan support. See how other creators are mixing it up and seeing lasting results — so you can apply these strategies to your own channel. Let's get into it!

- 실시간 온라인예배: 온라인예배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그 이후는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맡은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실시간 예배방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YouTube 프로그램이 스트리밍 upload방식을 업그레이트하면서 Live Control Room의 셋팅을 변경해서, 10월 11일 주일예배시 실시간 방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었고, 추후 문제를 찾아 10월 25일부터는 정상화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방송실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장호 교우가 테너 솔로자로 찬양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BU Opera Institute에서 수학 중입니다.
- 겨울철 환기를 위해 본당 창문에 플리카보네트로 air deflectors를 설치했습니다 (건물관리위원회와 협의).

## • 실시간 온라인예배 준비 소식

○ 본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를 하고 있고, 주일 오전에 내부온도가 높지 않도록 냉방조절을 하고, 예배 때 창문을 개방하고, 주중에 지속적인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예배현장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우들은 금요일까지 사무실을 통해 예약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당 참석인원 25명 이하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 친 교실에서도 예배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설교말씀은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본당에 오셔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영어설교는 김수영 목사와 심동근 전도사가 번갈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 찬양팀은 계속해서 주중에 가정에서 녹음을 하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찬양대는 솔로리스트들과 기악연주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헌금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헌금기도는 맡은 장로들이, 한글 성경 봉독은 집사/권사들이 동영상으로 혹은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 온라인예배의 예배 슬라이드 준비작업을 위해 하은혜 집사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 매주일 10시에 진행되는 실시간 예배는 방송팀 (구용한 집사, 김영돈 집사, 이석원 집사)의 지속적인 수고로 잘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어 교인들이 온라인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일 실시간 예배를 위해 최학수 집사가 예배위원으로 매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 집사회

회장 최학수 집사

가을 대청소: 연기 (내년 봄)

경조부 화환: 10/18 유승오 집사님 부친

교회 정비 및 건물관리 내역 (건물관리위 & 기획운영위와 동역):

Stained Glass & frame 보수:

MacDougall Masonry 최종 터치와 페인트칠 필요

ECC bulb replacement (regular dimmable LED):

진행중

Elevator paint or film: 진행중

르호봇 샘플- pond dye: done

구매물품:

touchless hand sanitizers x 2,

LED bulbs x 2, air purifiers x 4,

boiler thermostat,

floor standing sneeze guard x 2

Youth group chapel 천장 panel replacement

(up to 10 pieces)

12/12, 토요일:

집사회 총회 - 제직회 날로 연기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

제직회 (zoom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

무기명 투표 방법, 찬양 및 다른 순서들,

사역별 브레이크아웃 룸)...

# NCKPC 산하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NKPM) 소식

지난 9월 24일에 2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갖고, 앞으로 2020-2022년의 2년 동안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를 이끌 어갈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 반천수 장로 (산라파엘 장로교회, CA)

수석부회장: 김우식 장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GA)

부회장: 조현대 장로 (팜스프링스 장로교회, CA)

이유타 장로 (보스톤한인교회, MA)

총무: 최태진 집사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CA)

회계: 이제형 장로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WA)

부회계: 송이반 집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GA)

- 남선교회의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은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의 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ckpcusa.org/nckpc/Newsletter/NL2010/NKPM%2020201008.pdf>)

# KCB 연합 찬양대-virtual Choir

지휘자 박진욱 집사

안녕하세요, 찬양대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Thanksgiving 주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in-person으로 하는 것에 제약이 많고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virtual로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rtual은 다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본인의 것을 recording 하셔야 되고 video clip을 engineer 한테 보내야 됩니다. 물론 리허설도 없고 guide track을 들으면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곡은 할 수 없고 Thanksgiving Sunday에 1곡을 할 계획입니다.

## Thanksgiving 찬양

“You will never walk alone” in English

1. 조유미 집사님이 발음에 대해서 그리고 각 파트 음원을 피아노로 녹음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10/19, 월요일)

2. 개인적으로 연습

3. Guide Track (피아노 반주 또는 4 파트의 독창자들이 같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받으면 (10/26, 월요일) earphone or headset으로 들으면서 자기 파트를 불러서 녹음하시고 지정된 site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1/4, 수요일까지)

1. 정하은 반주자가 녹음한 가이드 반주 트랙 보내드립니다 - 여기 link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어폰으로 가이드 트랙을 들으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Portrait mode(세로방향)로 찍어서 11/4 (수요일)까지 제 개인메일로 보내주세요.

(보통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시고 다른 기계로 가이드 트랙을 들으시면서 녹음하시면 됩니다, 본인 목소리만 녹화가 되어야 하니 꼭 이어폰 연결된 상태로 가이드 트랙을 들으면서 녹음해주세요)

이번주는 피아노로 녹음된 파트 음원을 들으면서 개인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가이드 트랙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녹음해서 보내 주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파트음원
2. 발음 동영상
3. 악보

저희 찬양대에는 음악 전공자도 있지만 찬양이 좋아서 계신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절/창립기념예배 헌금송은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녹음하지만 하나의 스크린 안에서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3세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인만큼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Pandemic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You will never walk alone’,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해 주실 것임을 생각하며 녹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찬양대에서 봉사했던 솔로리스트들도 같이 하게되었습니다.

강수연 (소프라노) 김용신 (엘토) 오정록 (테너) 김태환 (베이스)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였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반가울 겁니다.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주일이 같은 주일이라 저희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곡으로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타지로 간 대원들도 참여함으로 창립주일에 Home coming Sunday 같은 기분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32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참여 못한분들도 계시지만 한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udio editing을 박초롱 교우와 진행중이며 다음주중 video editing을 해서 22일 주일 헌금송으로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찬양할 때의 기쁨도 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만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어서 처음 들었을 때 또 다른 벅찬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헌금송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년과는 다른 Thanksgiving day를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며 식사하며 즐겁게 보냈지만 금년은 코로나때문에 가족들조차 모일 수 없게 되어서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인내하는 찬양대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주일 여러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virtual 찬양을 은혜롭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며 많은 감정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 상록기도회

팬데믹 시기 동안에 상록기도회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던 차에 어르신들만의 단체 특.방.에 들어가 봤다.  
22명의 회원들이 서로 아는 지식들, 또 회원동정 등을 나누며 활기차게 생활하  
시는 모습을 엿보게 되었다.  
근래의 소식들을 들여다본다.

11/17/20  
사랑하는 상록회 여러분!!!  
엄인숙 집사님께서 오늘 이사하셨습니다. 아  
직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만 차츰차츰 좋아  
지는 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많  
이 기도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경희 권사)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 더 빨리 건강회복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재명 집사)

11/18/20  
오늘 르호봇 이야기"엘리사 1"이 올라  
왔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르호봇 이야기를 한주 쉽니다.  
(윤경문 목사)  
어제 정능화 권사님의 80세 생신이셨  
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11/20/20  
병원 침대에서 창 밖에 반짝이는 불들을 봅니다!  
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수 많은 조화를 감상합니다.~~(박기춘 권사)  
삐삐 소리가 납니다.~~ 왜 검정 상복을 입은 머리도 까만 하얀 피부의 간호사가 뛰어 들  
어옵니다. 뒤따라 라일락 색...(박기춘)  
권사님, 수술이 잘 마쳤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회복이 빠르시리라  
믿습니다. (이재명, 김명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생하다 밥술이나 먹을 만하니 또 이렇게 병원 들락 날락하  
나 봅니다. 어서 교회 open해서 예쁘게 만드신 옷 입으시고 늘 어여쁜 모습으로 오시는  
stylish한 권사님도 뵙기를 원합니다. ㅎㅎㅎ (박기춘)  
박기춘 권사님, 수술이 잘 되셨으니 이제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자 권사)  
네에, 아침 먹으라고 홍차와 치킨 부로스. 멀건 물 한컵, 얼음, 오렌지 주스~~ 수술 끝  
나니 살이 좀 빠질거라고 생각하니~~ 기분 좋습니다!! 평생을 살을 못빼더니... ㅎㅎ 어  
제 수술실에 한국 간호사가 들어와 얼마나 반가와 했는지요.  
한국 사람은 처음이라고요. 10여명중 유일한 한사람.  
Visitors are not allowed!  
장장 1:15~9:00 긴 시간을 탄 세상을 갔다 온 내게 딸이 옆에 없으니 참 섭섭했습니다.  
2년 반 전에는 병동에 방이 없어서 탄 병동으로 옮겨 잤었는데, 오늘은 방들이 많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장시간의 소설을 쓰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기춘)  
어젯밤 8시가 넘어 은혜씨에게 전화해서 수술 잘 끝나신 것 알고 감사드렸지요. 하나  
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권사님, 찬양 많이 들으세요  
(윤만강 권사)  
만강 권사님은 내 믿음의 인솔자 이세요. Thanks again!! (박기춘 권사)

11/19/20  
지금 박기춘 권사님 수술 중에 계십니다. 우  
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현자 집사)  
주여, 박기춘 권사님의 수술을 주님의 손으  
로 집도하여 건강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  
소서...(이재명)

박기춘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계  
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  
드립니다. (윤현자)  
수술 잘 마쳤다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소  
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기  
도드리겠습니다. (이경자 권사)

11/21/20  
내일 아침 10시에 온라인 예배가 있  
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  
내 링크와 주일 후보 첨부  
(윤현자 집사)

이렇게 상록회원들은  
섬세한 마음으로 서로  
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해 기도를 드리며 힘  
차게 사랑을 나누고 계  
십니다.



[박기춘 권사님의 이야기]  
 그냥 2년전에 수술했던 cancer가 다시 왕성해 지면서 lung에 암 세포가 비쳐서 Cyber Knife treatment 몇 번하고 이번에 멀쩡한 왼쪽의 신장과 요도를 잘라내고 안전하게 right side kidney로 살자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붓한 가을 어느날  
 Charles 강변 오리떼들과...

다행히도 Peter Chang 이란 손자같은 젊은 중국청년이 그 방면의 일인자라서 참 좋았습니다!!

안드레반 여러분들, 우리 bible study group 한분한분 대문 앞에 음식 갖다놓고 가시는 따뜻한 맘이 나를 눈물 글썽이게 만든답니다!!!

Pandemic 이 어려운 시기에 윤원길 장로님 내외분, 홍영희 권사님, 박기춘 권사 등 3덕은 켄터키 후라이 치킨 파티를 찰스 강변에서 했지요!! 3-4hrs 수백 마리의 오리들, 아름다운 가을날을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지냈답니다!!  
 오붓한 picnic였습니다~~~~~  
 하하하

[이재명 집사님]  
 상록기도회 회원들은 큰 문제는 많이 없으며 엄인숙 집사님께서 이제 재활 치료 중이시며 많이 회복 중 이십니다~~  
 이정숙 권사님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 다른 병이 아니고 급체라서 곧 퇴원하시어 지금은 건강 하십니다~~  
 각자들 나름대로 서로 죽이라도 동치미라도 나누며 봉사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차선 권사님]  
 저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동안 감사한 매일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집에서 근무하기에 Zoom Meeting 마치고 제가 있는 아파트 공원에 찾아와 매일 같이 걸으며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이제는 주말에만 같이 걷다가 단풍이 고운 Brookline Reservoir에서 찰칵, 아쉬운 가을을 담았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

[신좌경 권사님]  
 지난 9월에 106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정능화 권사님/장성주 집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왕 언니(이상구) 권사님과는 자주 연락합니다. 간간이 윤 목사님 편에 소식 듣고 또 몇 분 권사님, 그리고 타주에 있는 교우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교회 소식 궁금한데 소식 들어 너무 반갑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결속 하려고요.  
 우리 장 집사님은 운동삼아 나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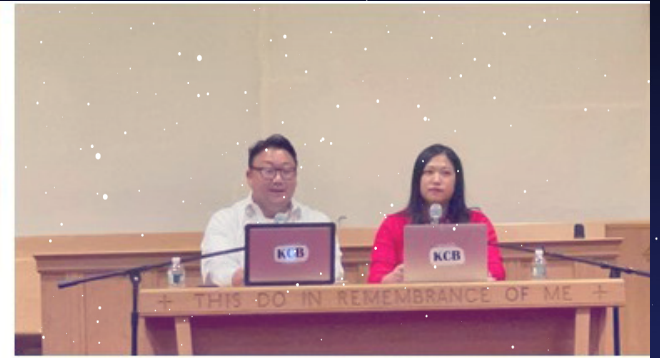
빨리 교회가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매일매일 건강 하고 좋은 일만 가득 가득하기를...  
 안녕

(편집자 주: 그동안 장성주 집사님은 건강의 문제로 병원 입원 3일간 입원하셨다 지금은 가료 중에 있으시고 앞으로 몇 가지 테스트를 위해 기다리는 중이십니다.  
 그래도 웬만큼 건강해지셔서 정 권사님의 음식 요리를 위해 전담으로 장도 봐 주시고 여러모로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계신답니다.  
 정 권사님은 허리 통증으로 불편하여 진통제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가끔 교회에 들르시면 교역자님들을 위한 음식 제공을 하시는 듯합니다.)

# 돌아온 쉼마의 밤

보이는 라디오

“당신이 빛나는 밤에”



보이는 라디오 "당신이 빛나는 밤에"

쉐마의 밤 : 2020. 11.28



## [똥숙이의 건강한 아침밥상]

닉네임: 똥숙

어릴 적 가끔 친구들이나 가족 친지들로부터 똥숙이라고 불릴 때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양탈을 부리기도 했던 그 별명이 지금에 와서 보니 그림고 다 저를 사랑했기에 놀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기간 어느 날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자신을 돌볼 겨를없이 앞만보고 달려왔던 저를 잠시 정지선에 멈추고 이 지점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침시간을 활용하기로 하고 매일 아침 운동 30분과 맛있고 건강한 아침 밥상을 만들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결과 14 lbs를 감량하게 되었고 보기에 건강에도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소리와 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집사

## [만보 용사]

Don't worry!

일주일이면 너다섯번 가던 짐(Gym)에서 그러도 좋아하는 요가와 사우나를 못하니 몸도 무거워지고 맘도 우울해지는 내게 '하루에 만보 걷기'라는 매일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만근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의 만보 걷기를 마쳤으나,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는 아주 거뜰히 즐겁고 쉽게 만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살고 있는 온 동네 구석구석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 나무들의 찬란하게 피어남을 보며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었고, 집 밖에 나와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는 즐거움에, 물론 남편과 함께 걸으면서 티격태격, 삐지기도 하고...

딸아이가 산보하러 나가는 우리 부부에게 "no fighting please."

항상 우리의 대답은 "Don't worry."였지만 우리는 종종 티격태격하고 풀어지고...

이제는 Gym이 오픈되어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운동함은 아직도 쉽지만은 않지만 짐에도 가고 가끔 만보용사로서 New Normal Life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음이 참으로 큰 감사입니다.

## [코비드 중에도 훈련중인 올림픽 꿈나무]

권복태 장로

우리 부부도 요즘은 막내 딸 집에 출퇴근하며 손주들 3명 돌봐 주고 있습니다. 딸 부부 재택근무에 학교마저 closed 되었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두 살 된 막내 손주 (쌍둥이 중 하나)의 jump rope training. 16년 후 Olympic을 목표로 맹 연습 중이지만 중목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는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고 곧 다시 만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원 집사



# [코로나-19 팬데믹의 거친 물결을 건너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

김정선 장로

Mr. 시내산

#코로나19 #팬데믹에 둘러 쌓여 꼭 막힌 세상,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지난 4월 어머님같은 권사님이 코로나19로 산소마스크에 격리 치료를 받으시다가 소천, 장례식에도 못 가뵙고, 그후 다른 두 분의 장례식도 역시 참석 불가, 가슴이 아프고 눈이 아려 온다. 모든 것이 격리, 비대면으로 바뀌어 가족도 멀리서만 보아야 하고, 친구와 악수도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산친구와 산에도 못 오르고, 여행은 생각 할 수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세계가 같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나마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 타닐 수 있는건 일선을 지키고 있는 #FirstResponders,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역사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지만 의학뿐만 아니라 정치, 개인의 견해가 크게 영향을 준 팬데믹이다. 무기력하게 죽어간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금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을 지키고 있는 First Responders,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Pandemic)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으로 절망에 빠진 모든 분들, 노약자, 허약자, nursing home에 계신 분들, 두려움에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6백만 이상의 실직자, 문을 닫은 small business등 미국 경제 대공황을 연상케 한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둘러싼 이후로 모든 생활이 변해 버렸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더 힘들게 되었다. 갑자기 소천 받으신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의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루지 못했고, Wake도 없고 가족에게 위로의 조문을 할 기회도 없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추도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난 9월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난 서울대 선배님의 장례식과 추모회도 온라인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3월 부터 Doctor's Appointments, Dentist Appt 다 취소해야 했고, #동창회 #산우회의 산행도 다 취소, 워싱턴 선배님 부부 결혼 50주년 기념 전시회 참석 계획도 취소해야 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한인행사들이 또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대학동창회의 연례 미팅도 모두 #Zoom 을 통한 비대면이다. 교회도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바꾸었다. 보스톤한인교회도 Youtube channel로 online 예배를 드린다. 3세대가 같이 제단을 쌓고, 1, 2부 Youth, Sunday School Service를 모두 한데 묶어 Bilingual로 예배를 보는데 절기에 맞춰 성찬식도 드린다. 예배 전, 후로 Online 성경공부가 Zoom으로 진행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비록 화면으로 만나지만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언젠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Fellowship의 소소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역시 일선에서 이 모든 사역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길 건너 사는 손주들도 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서 Zoom을 통해 Home-schooling, 피아노, 발레, 과외활동도 online으로, 우리도 두 달 내내 Facetime으로만 Hi를 한다. 할머니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딸 집 앞에 두고 오고, 딸은 시장에서 보아 온 그로서리를 우리 집 앞에 놓고 간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 비만 안 오면 매일 함께 조용한 뒷산에 가서 마스크 쓰고 한시간 반 산책을 하고 온다. 날이 좋으면 김밥도 싸가지고...

코로나19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 모든 것이 정체되고 격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불행 중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 여행이 제한되어 세계의 교통량이 줄어들고 공장이 문을 닫아 대기가 깨끗해지고 부모와 자식들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하고,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꽃샘 비바람 후에 봄이 오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루하루 이겨내고 고통받는 전세계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 터널 끝에서 건강한 얼굴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 [God is everywhere]

Sam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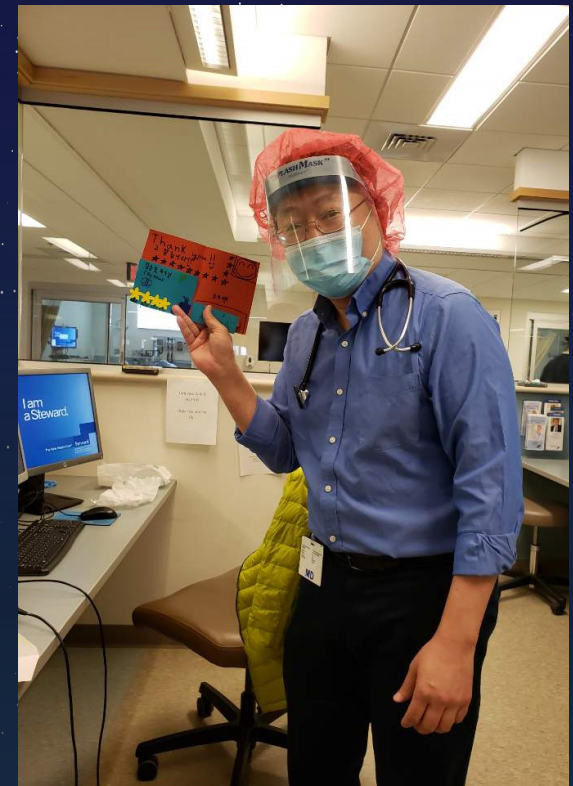
Another patient died of COVID-19 this morning. She was only 52 y.o. I lost count of how many people died of COVID in this room. They usually came in really sick and didn't stay here long until they died. As this pandemic lingered on for months, I asked myself the fundamental question how God reigns his world. We don't know yet what God's plans are through this pandemic. We don't even know when the end would be.

Would it be a good or bad end? Whatever we face now, I realize that God has planned this for long time and distributed different talents to each of us to walk together through these difficult times. During the uncertain times, some people serve as educational professionals, some people serve as medical professionals, some people serve as spiritual leaders and some people serve as good citizens. As long as we do our job where we stand, we would see what God has planned for through this pandemic in the near future.

I preached about God in the chapel once and now I am here to serve the people as a doctor, which I believe that I am serving God in a different way. This is where I stand for God. I have nothing but giving thanks to the Lord, praising, and worshiping Him here in the ER.

Hope everyone has a wonderful Thanksgiving and stay healthy and safe. Don't forget to wear a mask and practice social distancing. Those two are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preventing COVID. I miss you all.

p.s. Thanks for the encouraging letters from everyone. That was really touching.





## [팬데믹, 임신과 출산]

박수진 교수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무서웠던 팬데믹 혼란 속에 아기 천사 찾아왔어요.

팬데믹 속 이혼 아님 임신이라는데, 저희 가정에는 축복처럼 쑥쑥이가 왔어요. (남아, 2021년 1월 10일 예정)

그 와중에 7월에 남동생 결혼이라 한국행 티켓을 끊었는데, 유학생 부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집세를 아끼기 위해 겸사 겸사 짐을 맡기고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서 엄마의 따뜻한 밥과 배달 앱 덕분에 임신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 좋아졌어요. 이제 남편이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 찾아 안 다니고 어플만 있으면 충알 배송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받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3주에 한번씩 검진받고 있고요. 한국 엄마들 다 찍는다는 만삭 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먹고 쉬다 보니 어느덧 쑥쑥이(태명) 만날 날이 50일쯤 남았네요.

저희 부부는 다음 봄학기까지 온라인 강의로 결정이 나서 한국에 조금 더 머물 예정입니다.

보통 한국 시간 저녁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나는 수업을 듣느라 남편이 고생중이지만 함께 아기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친정엄마의 옆에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보스톤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 만나 뵈는 때는 갑자기 한 명의 식구가 더 늘어있겠지만 놀라지 마세요.

하루 빨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싶습니다





## [제가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지용 교우

예수님, 부부로 맺어주셨는데 왜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거죠?

부부인데 왜 아내는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며 남편을 전도하고자 하는데, 왜 남편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왜 자녀가 아파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요?

어렸을때는 그렇게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커서 말대꾸하고 자꾸 부딪치고서로 살얼음을 걷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또 엄마, 아빠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정작 자녀는 왜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성경책은 예나 지금이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세상은 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다는 그 반대의 소식들로 넘쳐나는 걸까요?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니지만, 요즘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요즘엔 이런 질문들로 인해 마음이 가끔 힘들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자연스레 정리가되는 질문들인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엔 모든 것들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지며 해결의 실마리도 안보이네요.

몇일을 고민하다 문득, 위 질문들이 제가 누리고 받은 은혜와 혜택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의 가벼운 욕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과 또 기쁘고 좋은 일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뿐, 왜 이런 은혜와 감사가 나같은 죄인에게 주어지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는 부부 관계지만 지금까지 가정을 지탱해준 것에 대한 감사, 지금은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지만, 다시 되찾을 건강을 기대하며 감사, 또 주님을 모르는 자녀가 언젠가 주님의 때에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마음, 또 누군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당장 오늘 말씀 한구절을 읽고 묵상해서, 주변에게 전하는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 질문은 감사의 제목과 주님의 저에게 주신 헤아릴수 없는 은혜를 잠시 잃어버렸기에 나온 질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중 하나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딤후 3:9절의 말씀이 처음엔 막연히 좋았습니다. 마치 도덕책에 나올듯한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과, 주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평안과 기쁨 즉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몇일동안 되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깨끗한 양심을 가질수 없는 존재이고 믿음의 비밀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도 포함된다는 사실어요...

여러가지 잘못된 상처와 아픔, 부끄러운 기억들과 실수로 가득찬 제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이시고, 온전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세상의

혼돈가운데 오직 주님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비결은 “믿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하루 하루 묵묵히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시간 기도합니다.

저처럼 멍때리게 해답이 없는 고민들로 고민하고 또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아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하루를, 이 순간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보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작은 정성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하루에 단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수 있게해 주세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의 처량한 모습으로 우울하고 화가날때, 진심으로 모든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변해버린 2020년을 지나가면서,

이 밤 변치 않는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누리며 “믿음의 비밀을 아는자”가 되어가는 저희 모든 보스톤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의 한 페이지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농담하고, 더 많이 찬양하겠습니다.

## [딸아, 두번째 13살 생일을 축하해!!]

이지훈/정은아 집사



여기는 텍사스, 온남매네 인사드립니다.

보스톤에서 나고 자란 세 아이들은 요즘 보스톤 없이 증입니다. 아들은 아직도 여기를 보스톤이라고 부르면서 시위를 하고 있고 딸들은 펌프킨-스파이스-라떼 향기는 보스톤에서 말아야 느낌이 난다는 등, 애플피킹 다녔던 추억을 팔다가 아빠를 붙잡고 대성통곡...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회 대문 한 번 넘어보지 못한 채 친구 한 명 없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아이들만 향수증세를 보이는건가? 나는 괜찮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돌아서 나온 보스톤이기에,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마음으로 큰 소리치며 달려온 텍사스이기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푸른 잎사귀가 더 많은 이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을풍경을 느끼려고 보스톤 친구들의 대문사진을 구경하는 저를 보면서 '너도 그림구나, 14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건 아니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기도 했을거고 무뎠지려고 애썼던 많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혼났습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갈 순간들이긴 하지만 다른 인생의 경험보다 좀 더 지독하게 겪고 있는 건 팬데믹 때문이에요. 24시간, 다섯식구가, 각자 자기 일을, 한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현실은 살다살다 거의 처음 겪어보지 싶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혈연을 넘어 피보다 더 찌한 무엇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완전체가 되어서 7개월을 살다보니 물론 좋은게 왜 없겠습니까만은 '와, 너무하네' 싶을 만큼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소소한 해프닝이 있었지요. 10월은 큰 딸의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보스톤도 그림지 친구들도 그림지 이 번 생일은 특별할게 없을 거라며 미리 실망스러워하는 딸의 말을 듣고 남편과 나는 이 번 생일은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해주어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 축구 경기차 달라스에 가는 바로 그 주가 딸 생일이니 잘됐다 싶어 근사한 숙소를 정하고, 케이크, 풍선, 손카드, 선물, 서프라이즈 동선까지 잘 짜서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경기가 있던 토요일 아침에 아들은 경기장에 그야말로 내던져 놓고 남편과 낮선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아이들에게 산책을 제안하고 저는 쉬겠다는 명목으로 방에 남아서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큰 맘 먹고 산 커다란 숫자 풍선 13을 창가에 띄우고 케이크에 초를 13개 꽂고 불을 부치고는 미션완료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나고 방문이 열릴 때 캄캄한 방에 들어선 딸을 향해 온가족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축하해, 사랑해! 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방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 남편이 "어, 여보... 풍선 숫자가 13이네? 온서는 14살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생일을 준비하는 몇 주 전부터 풍선은 아주 큰 숫자로 13을 살 것, 초는 13개 준비할 것, 레드벨벳 맛이 먹고 싶다는 딸을 위해 레드벨벳 맛을 섞어서 컵케 13개 준비할 것, 카드에도 "13살 생일을 축하해" 적으며 울컥했던 엄마입니다.

대충대충 계산하고 생각하는 나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핑계 좋게 "에이씨(까지만 말했습니다) 이 놈의 코로나! 딸나이드 계산 못하게 혼을 쏙 빼놓고!" 하면서 허공에 대고 호통을 쳤습니다. 진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지경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코로나에 화가 나 있기도 했고요. 대충 넘기기에 너무 미안해서 우울해지려고까지 하는 순간 남편이 "온서야, 엄마는 온서가 크는게 아쉬웠나보다. 온서 두번째 13살 생일하면 되겠네."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 마디에 온서도 저도 나머지 두 아이들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쩔 빨리 나이를 먹고 싶을 우리 딸에게 엄마가 2020년을 13살로 한 번 더 살게 만들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2020년 팬데믹 때문에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들을 다시 찾는 13살 같은 14살 되라는 의미로 우리 딸이 받아주길 바라보려고 합니다. 비싸게 주고 산 풍선은 2개월 아꼈다가 13살 되는 아들 생일에 써보려고 했으나 5시간 넘은 이동시간 중에 3이란 숫자풍선은 힘없이 바람이 다 빠지고 말았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는데 나는 잘있어요, 잘 지내나요? 보고싶어요 연예편지 쓰듯 사연을 쓸 수 있게 설레는 제안을 해주신 혜승 집사님 감사드리고 보스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날마다 평안하시길 멀리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찬양팀의 수고]

정광근 집사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펜데믹...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풍처럼 세상을 덮어 버렸습니다.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의 위협이 몇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주일 아침 교회에 가지 않고 집 안에서 예배를 들었을 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도 늘 누리고 당연히 여겨왔던 일상, 특별히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렸던 지난 주의 상황이 너무 빠르게 멀어지는 것 같아 뛰어가 붙잡고도 싶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보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일주일내내 또 주일 당일 동분서주 준비하는 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요즘 저의 기도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회 소속 집사님들. 헌금송을 준비하고 어레인지 하는 찬양대 지휘자님과 연주자님들 그리고 매주 실시간으로 예배를 문제없이 방송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방송실을 지키시는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알지만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특별히 우리 찬양팀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주일예배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매주 금요일 밤 늦게까지 녹음하고 토요일도 8시간 넘게 온종일 찬양곡들을 편집하느라 수고하시는 찬양팀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 팀의 리더아신 최현규, 김희연 집사님 가정과 황동준, 안은신 집사님 가정의 수고를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의 엄청난 헌신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두 가정 모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느라 수면 부족은 물론, 집안일도 미루기 일수이고,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식사나 학교 숙제도 제때 도와줄 수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열심과 열정이 이 두 가정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시는 찬양팀의 수고로 저희들 매주 손벽 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뜨거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터와 가정 특별히 귀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p.s.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스레 형성된 삼세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가 우리 아이들과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에 눈뜨게 합니다. 우리 두 아이들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시작하는 예배는 뿔뿔망망한 주일학교, 유스그룹 아이들이 낭독하는 성경 말씀 때문에 잔잔한 미소로 채워집니다. 철없는 아들 민우도 집중하게 만드는 김수영 목사님과 심동근 전도사님의 설교는 우리 두 부부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여전히 한국말이 편한 우리 부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팬데믹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최학수 집사

“에구 이놈아, 빨랑 일어나야지, 예배시간 늦겠다...”

매번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던 것이 잊그제 같은데...

이젠 살짝 여유가 생긴 게 사실이네요.

아침햇살을 보면서 일어나서 커피한잔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에서 바로 갠 아이와 함께 앉아서 TV를 켜고 드리는 예배...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새 다녔던 새들이 등지 뜬 머리 그대로, 때론 구겨진 파자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능하게 하시는 집사님들의 수고를 봅니다.

매주 예배 자료를 준비하느라 토요일을 온전히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보내시는 하은혜 집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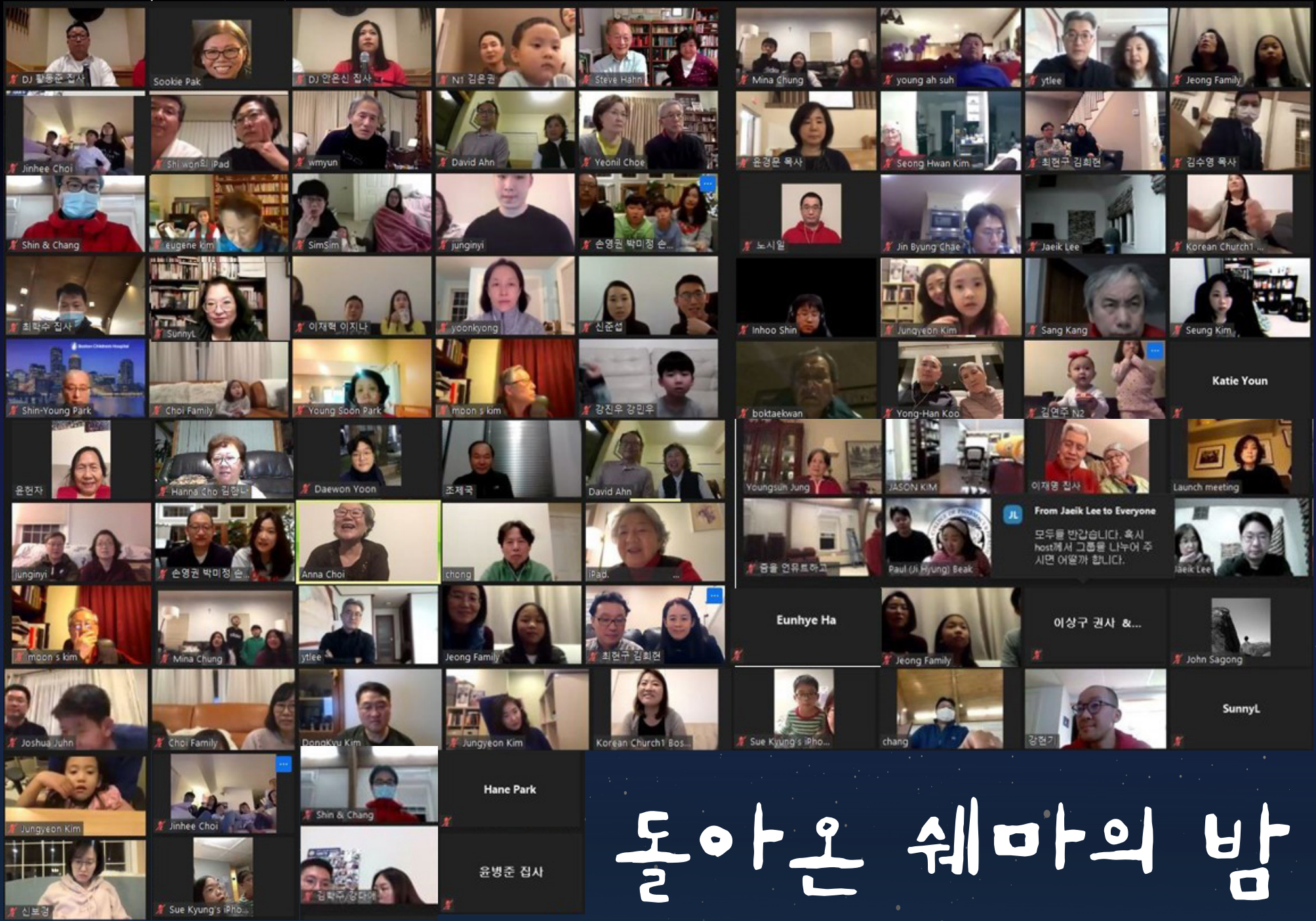
방송사고가 날까봐 좁은 방송실에서 카메라와 음향,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맡아서 숨죽여가며 예배를 준비하고 송출하시는 김영돈 집사님, 구용한 집사님, 그리고, 이석원 집사님,

팬데믹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되어 바쁜 것이 두배로 늘어나 버렸음에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예배위원회 박신영 장로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먼지 쌓인 교회 천장을 기어다니며 방송케이블을 팔고 카메라를 설치하신 정재원 집사님...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가족은 오늘도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방송팀의 예배를 통해 우리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어 갑니다.





# 돌아온 쉼마의 밤

From Jaek Lee to Everyone  
모두를 반갑습니다. 혹시  
host께서 그룹을 나누어 주  
시면 어떨까 합니다.

Hanc Park

윤병준 집사

Katie Youn

Jaek Lee

John Sagong

SunnyL

Eunhye Ha

이상구 권사 &...

DJ 황종준 집사

Sookie Pak

DJ 안은신 집사

N1 김은권

Steve Hahn

Mina Chung

young ah suh

ytleee

Jeong Family

Jinhee Choi

Shi won의 iPad

wmyun

David Ahn

Yeonil Choe

윤경문 목사

Seong Hwan Kim

최현규 김희현

김수영 목사

Shin & Chang

eugene kim

SimSim

junginyi

손영권 박미정 손...

노시일

Jin Byung Chae

Jaek Lee

Korean Church1 ...

최학수 집사

SunnyL

이재혁 이지나

yoonyong

신준섭

Inhoo Shin

Jungyeon Kim

Sang Kang

Seung Kim

Shin-Young Park

Choi Family

Young Soon Park

moon s kim

강진우 강민우

boktaekwan

Yong-Han Koo

김연주 N2

Launch meeting

운전자

Hanna Cho 김현나

Daewon Yoon

조재국

David Ahn

Youngsuh Jung

JASON KIM

이재영 집사

Launch meeting

junginyi

손영권 박미정 손...

Anna Choi

chong

iPad

꿈을 이루려고

Paul (Ji Kyung) Beak

From Jaek Lee to Everyone

Jaek Lee

moon s kim

Mina Chung

ytleee

Jeong Family

최현규 김희현

Eunhye Ha

Jeong Family

이상구 권사 &...

John Sagong

Joshua Juhn

Choi Family

DannKy Kim

Jungyeon Kim

Korean Church1 Bos...

Sue Kyung's iPho...

chang

강현기

SunnyL

Jungyeon Kim

Jinhee Choi

Shin & Chang

Hanc Park

신보경

Sue Kyung's iPho...

김학수/장다영

윤병준 집사





oasis music series 2020  
**STEP INTO LIGHT**  
Finding Comfort Together in Music

Free  
온라인 콘서트

Click Here

**오아시스 뮤직 나이트**

**Step Into Light**  
-Fidning Comfort Together In Music -

Dec. 5th. Sat. 7 P. M.

www.ecckcb.org

Music of Bach, Handel, Haydn, Mozart, Debussy, Schubert... Virtual Streaming Concert  
12.5.2020 Saturday 7 PM EST www.ecckcb.org

**중고등부 연말 구제사역**

**CLOTHES &  
CARE-PACKAGE DRIVE**

Click Here!





#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11월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 교육



강의식 성경공부반





다니엘 반

Boston  
Rescue  
Mission  
김동숙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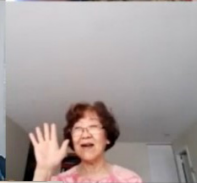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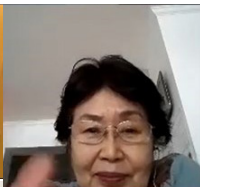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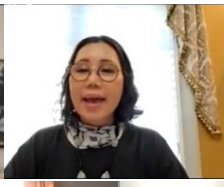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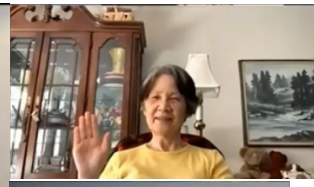
요한 반



빌립 반



부청.성.공.반



안드레 반